

뚜레쥬르 가맹점 매출 1.2% 줄 때... 본부는 9% '쑥'

작년 본부 영업이익은 59% 늘어 214억으로 경증 CJ푸드빌 "빚스 등 외식분야 사업 호실적 덕"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지난해 가맹점주 평균 매출은 감소한 데 반해 가맹본부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뚜레쥬르의 가맹점주 평균 매출액은 5억6345만 원으로 2022년(5억7023만 원) 대비 1.19% 소폭 감소했다.

가맹점 면적(3.3㎡)당 평균 매출액도 2022년 1931만5000원에서 2023년 1894만 1000원으로 1.94% 가량 줄어 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가맹본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늘어났다. 뚜레쥬르 가맹본부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7010억 원으로 2022년(약 6421억 원) 대비 9% 남게 증가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60% 가까이 급증했다.

2022년 약 134억 원이었던 뚜레쥬르 가맹본부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약 214억 원으로 약 59%(약 80억 원) 증가했다.

뚜레쥬르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의 전체 매출 중 뚜레쥬르의 가맹사업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58%다.

CJ푸드빌 측은 가맹점 평균 매출액 감소에도 가맹본부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에 대해 가맹사업 외 외식 분야 사업이 호실적을 기록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지난해 가맹점주 평균 매출은 감소한데 반해 가맹본부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J푸드빌

CJ푸드빌 가맹사업 담당부서 한 관계자는 "가맹사업 외 빚스 등 기타 CJ푸드빌이 영위하는 외식 사업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뚜레쥬르는 최근 늘어나는 인건비와 물류 비용 때문에 선물용 양과 제품과

우유·음료 등 일부 제품의 권장 소비자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CJ푸드빌에 따르면 뚜레쥬르는 19일부터 제조사 매입 제품 51종 가격을 평균 5.6% 인상했다.

구체적으로 요거트 웨이퍼샌드와 세가지맛양갱세트는 1000원 올라 1만7000원·1만9000원에 각각 판매된다. 버터 샤브레 쿠키 가격은 300원 오른 6000원이 됐다.

당시 CJ푸드빌 관계자는 "물류비와 인건비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까지 계속 오르면서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빵을 만드는 주재료인 밀 가격 하락 추세에 따라 일부 빵 제품 가격은 인하에 나섰다. 이에 따라 후레쉬크림빵·팥공크림빵·완두앙금빵 등 제품의 가격은 평균 6.7% 내렸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전력 수요는 커지는데... 원전 줄줄이 멈춘다

고리 3호기가 계속 운전 허가받지 못하면서 이번 주말부터 가동을 멈춘다. 현행 법상 중단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었지만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운영 연장 절차가 늦어졌고 내후년까지 고리 4호기와 월성 24호기는 3년 가까이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점쳐진다.

재가동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이 기간 발전 비용 상승이 불가피해지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계속 운전 연장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5일 원전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28일부터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발전 용량 950MW 규모의 고리 3호기 원자로 가동을 중단한다.

고리 3호기는 1979년 12월 건설 허가를 받고 1984년 9월 상업 운전 허가를 받아 40년간 전기를 생산했다. 쌍둥이 원전인 고리 4호기도 내년 8월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된다.

지난해 4월 멈춘 고리 2호기를 비롯해 계속 운전 신청 시기를 놓친 원전은 모두 6기다. 업계는 원전 가동 중단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고리1·2·3·4호기의 모습. 연합뉴스

탈원전 정책 여파 2년 이상 중단 불가피 계속 운전 시기 놓쳐 월성 2·4호기 스톱

문 정부는 통상적으로 최초 설계수명이 만료되기 전인 3년6개월~4년 전에 착수해야 하는 계속 운전 허가 절차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리 3·4호기에 대한 계속 운전 신청은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2022년 9월에야 이뤄졌다.

문제는 월성 2·4호기 계속 운전이다. 월성원전의 경우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더라도 중수로 원전 특유의 기나긴 설비 개선 공정 탓에 실질적인 가동 기간(10년)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설비개선 작업이 길어지면 가동 기간이 그만큼 줄어 월

성원전 계속 운전의 경제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당시 380기에 달하는 압력관을 전량 교체했다. 이 기간만 27개월이 소요됐다. 업계에 따르면 압력관 계약 준비·제작·실제 교체 작업까지 포함하면 5년 반가량이 걸린다. 반면 현행법상 국내 원전은 최초 설계수명 만료 후 10년씩 계속 운영을 하게 돼 있다. 중수로 원전은 경수로 원전 대비 2배가 넘는 설비 개선 투자 비용이 든다.

특히 2026년 11월 초 가동을 멈추는 월

성 2호기는 발동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당장 내년부터 압력관 교체 등 주(主)공정 작업을 사전에 준비해도 최대 4년 가까이 멈춰 서 있을 것이라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원안위 허가 전에 합부로 설비 개선을 시작할 수 없어 가동 중단 기간을 줄일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월성원전 원전기술을 보유한 캐나다 퀘벡 측과 협의를 통해 각종 자재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방법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건 10년 계속 운전 기간 산입에 설비 개선 기간을 빼는 것이다"고 말했다.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기획평가위원(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계속 운전하는 게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는 것보다 주민 수용성이 높다"며 "탈원전을 채택했던 스위스와 벨기에조차 계속 운영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중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0년 단위로 계속 운전 허가받는 미국·일본과 달리 한국은 10년 단위로 승인을 받아야 해 수명 연장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北 오물 풍선 살포, 인천·김포공항 총 413분간 중단"

북한의 오물 풍선 공격으로 인천·김포공항 운영이 올해 들어 총 20차례(총 413분)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항공 당국은 오물 풍선이 일정 거리보다 가깝게 공항에 접근할 경우 안전을 위해 활주로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서울 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3일까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천·김포공항 활주로의 운영이 올해 들어 총 413분간 중단됐음을 밝혔다.

항공청은 오물 풍선 살포가 있었던 6월1일 54분간 인천공항 활주로를 처음으로 운영 중단했다. 이튿날 오전에도 오물 풍선 살포가 이어져 37분간 활주로 운영을 제한한 바 있다.

특히 6월26일에는 오물 풍선 살포로 총166분간 운영이 제한되면서 올해 들어 가장 오랜 시간 인천공항 활주로 운영이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가장 최근 공항 운영이 중단된

23일 서울 용산구 상공에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가 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계속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것은 23일이다. 이날 인천공항 활주로는 총 90분간 아작륙이 제한됐다.

김포공항의 경우에도 7월24일에 처음으로 오물 풍선으로 운영 중단됐는데 당시 총 58분간 김포공항 내 모든 활주로에서의 아작륙이 제한됐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공항에서 활주로 운영 중단 등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오물 풍선 살포 지속 시 공항이 마비되고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만큼 정부가 항공 안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발생하고,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가 항공기 운항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해 그동안 정부가 어떤 노력을 펼쳤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곽수연 기자 sykwak@skyedaily.com

한 지역의 소아 의료체계를 바꾸고 국가의 아동 복지체도를 바꾸는 대한민국 58만 초록빛 능력자들
우리의 힘으로 어린이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바꾸는 초능력

초록우산